

人文論叢

83권 2호

2026년 5월

일반 논문

죽당(竹堂) 신유(申濡) 유배시(流配詩)의 두 국면 한 개인의 붕괴와 재건을 중심으로*

김묘정**

초록 이 글은 죽당(竹堂) 신유(申濡, 1610~1665)의 유배(流配)와 이배(移配) 경험, 그리고 유배시(流配詩)에서 포착되는 한 개인의 두 가지 국면을 규명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죽당집』(竹堂集) 가운데 「청원록」(淸源錄)과 「도솔록」(兜率錄)에 수록된 유배시를 대상으로 그의 삶과 시세계를 유기적으로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에 따라 먼저 2장에서는 죽당의 삶을 개관한 이후 『효종실록(孝宗實錄)』 사료를 통해 1657년 유배와 같은 해 10월 천안으로의 이배 경위를 각각 확인하고 문집의 편제와 유배시 수록 양상을 검토하였다. 이어서 3장에서는 ‘붕괴’와 ‘재건’이라는 두 국면으로 나누어 죽당의 유배시를 고찰하였다. 첫 번째로 ‘붕괴’라는 측면에서는 초기 유배시에 나타난 점진적 현실 인식과 자조적 정서의 교차 양상을 통해 기존 삶의 질서가 흔들리는 과정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구체적으로 한시 분석을 통해 꿈과 현실의 경계, 명리와 은거 지향 사이에서 충돌하는 자아 인식이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밝혔다. 두 번째로는 ‘재건’이라는 측면에서 물품 증여와 관련된 사례시를 추출해 분석함으로써, 죽당이 물품 받기라는 행위를 통해 관계 속에서 자기 존재를 찾고자 한 면모를 확인하였다. 이에 「청원록」 소재 사례시가 방황 속에서 자기 존재를 모색하는 과정이라면, 「도솔록」에 수록된 작품들은 삶이 재건되는 양상을 일부 보여주고 있음을 밝혔다. 이에 이 글에서는 죽당의 유배시에 드러난 붕괴와 재건의 국면을 연속선상에서 살핌으로써 그가 유배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인식 세계를 정립해 나갔는지를 입체적으로 확인하였다.

주제어 죽당 신유, 유배, 붕괴, 재건, 사례시

* 이 연구는 2025학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단국대학교 한문교육과 조교수

1. 머리말

이 글은 죽당(竹堂) 신유(申濡, 1610~1665)의 유배(流配)와 이배(移配)라는 경험을 중심으로 그의 유배시(流配詩)에 드러난 두 국면을 규명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한 인간에게 유배란 어떠한 의미이며, 유배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산출된 유배시는 어떤 성격의 문학인가라는 질문은 이미 기존 한시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그에 따라 개별 문인을 대상으로 한 논의 또한 수없이 축적되어왔다. 그러나 유배시 연구가 일정한 해석의 틀 속에서 반복되면서 특정 문인의 삶과 문집 전체를 유기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채 기존의 논의를 답습하는 한계 또한 드러난다고 여겨진다. 이에 현시점에서 유배시 연구의 방향성을 재노정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그에 따라 먼저 유배시 연구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선행 연구에서 다룬 유배시 연구 현황을 유형별로 대별하여 살펴보는 작업을 선행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유배시 연구는 대체로 작가론적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해당 문인의 유배시가 지니는 특징과 의미를 밝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고 하겠다. 이에 이 글에서는 개별 작가론의 전개 양상을 정리하기보다는 유배시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주목해 온 몇몇 지점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연구 경향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구 유형은 유배시를 연구하면서 해당 문인의 정서에 집중한 논의이다. 유배시 연구의 상당수는 대략 이 범위에 포섭되는 실정이나 지면상의 한계로 정서를 확인하는 데 집중한 선행 연구만을 선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에 먼저 울분과 좌절 -현실 부정의 내적 갈등, 안분과 자적 -현실 동화의 외적 지향으로 대별하여 작가의 정서를 살핀 연구가 확인되며,¹ 자탄(自嘆), 자위(自慰), 자조(自照)로 나누어 유배시를 분석하거나² 절제·여유·해

1 윤재환(2008), 「朝鮮 後期 流配 經驗의 詩的 形象化: 梅山 李夏鎭의 「雲陽錄」을 中心으로」, 『漢文學報』 19, 우리한문학회, pp. 321-349.

2 김은지(2011), 「李荇의 유배시에 나타난 정서 양상」, 『國語文學』 50, 국어문학회, pp.

학의 내재, 자위·다짐·역설의 내재, 미련의 내재로 세분화하여 정서의 제 양상을 다루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³ 또한 조선 후기 유배시의 서정 표출 방식을 주로 논하면서도 시 양식에 따른 특징을 분석한 성과도 확인된다.⁴ 아울러 유배시의 미적 특질을 확인하고자 한 연구 성과가 포착되는데 이 역시 유배시의 시품(詩品)을 처완(悽惋)으로 규정하면서도⁵ 정서 분석에 집중했다는 점에서 첫 번째 유형에 포섭시킬 수 있겠다. 두 번째로는 유배시가 창작된 공간에 주목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이에 먼저 유배지에 대한 공간 인식 양상에 주목한 연구가 확인되며⁶ 고려 후기부터 조선 말기까지 수백 명의 사람이 유형(流刑)에 처해졌던 유배지인 제주를 중심으로 유배지에서 삶의 삶을 조망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왔다.⁷ 세 번째로는 유배시에 나타난 교유 양상을 확인하고자 한 연구가 있다. 이에 먼저 유배시에서의 교유의 의미를 밝힌 성과가 확인되는데, 이는 고려시대에는 고향이나 외가 등으로 유배시키는 연고지 유배형이 있었고, 유배지에서 지방관의 각별한 대우를 받기도 하는 등 비교적 자유로운 교유가 있었음에 주목해 거둔 성과라고 하겠다.⁸ 다음으로는 정만조(鄭萬朝)의 진도 유배시를 대상으로 현지인과

193-215.

- 3 김진호(2012), 「柳方善의 流配詩에 내재된 정서의 제 양상」, 『大東漢文學』 37, 대동한문학회, pp. 221-251.
- 4 강혜선(2017), 「조선 후기 유배 한시의 서정성: 시 양식에 따른 서정의 표출 방식을 중심으로」, 『한국한시연구』 25, 한국한시학회, pp. 221-269. 강혜선의 연구를 살펴보면 장편 고시로 쓴 이광사의 편지시 - 가족의 발견, 중편 고시로 쓴 김려의 贈別詩 - 人間愛의 발견, 근체시 연작으로 쓴 박제가, 이학규의 생활시 - 일상의 발견, 고시로 쓴 박제가와 이학규의 詠懷詩 - '나'의 발견 등으로 세분화하여 논의를 진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 5 하정승(2017), 「麟齋 李種學의 유배시에 나타난 意境과 미적 특질」, 『동방한문학』 73, 동방한문학회, pp. 129-164.
- 6 박명희(2018), 「文谷 金壽恒의 靈巖 유배 시에 나타난 공간 인식과 지속」, 『동방한문학』 77, 동방한문학회, pp. 259-288.
- 7 고영진(2024), 「북헌(北軒) 김춘택(金春澤)의 제주 유배지 삶에 대한 고찰」, 『문화와예술연구』 25,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예술콘텐츠연구소, pp. 153-188.
- 8 안장리(2018), 「척약재 김구용 유배시에서 교유의 의미」, 『포은학연구』 21, 포은학회, pp.

의 교류와 그 의의를 밝힌 연구가 주목된다. 이 논문은 ‘어떤 특정한 한 사람과 있을 때 지은 것’, ‘여러 사람과 어울렸을 때 지은 것’, ‘정만조가 시를 지어 다른 사람에게 보인 것’ 등으로 나누어 한시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⁹ 이에 필자는 선행 연구의 자장 안에서 유배시를 면밀하게 검토하면서도 기존 연구에서 포착하지 못한 지점들을 심화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유배라는 경험은 공간적 이동이나 정치적 좌절이 아니라 개인이 기존에 지녀왔던 모든 삶의 체계를 한 번에 뒤흔드는 인생의 분기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글에서는 유배를 한 개인의 ‘붕괴’라는 개념으로 논의하면서도 ‘재건’이라는 관점에서 유배시를 유기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필자가 그간 축적해 온 한시 연구의 관점과도 맞닿아 있으며 그 연장선에서 죽당의 문집을 다시 검토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필자는 그간 한시를 한 인간의 문학적 성취이자 정신적 산물로 이해하는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죽당의 문집을 처음 접한 것은 2018년 무렵이었으며, 이후 그의 일본 체함과 지식 기반의 확장을 중심으로 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¹⁰ 더 나아가 문집 전체를 다시 검토하며 죽당의 생애와 문학 세계를 개관하고자 하였으나,¹¹ 그 과정에서도 여전히 충분히 해명되지 않은 영역이 남아 있었다. 사실상 죽당은 학계에서도 일정 부분 주목을 받았으나, 그의 사행문학(使行文學)에 해당하는 「해사록」(海槎錄)과 「연대록」(燕臺錄)이 주로 논의 대상이 되었으며¹² 최근에는 제4권

5-31.

- 9 박명희(2020), 「茂亭 鄭萬朝의 진도 유배 시에 나타난 현지인과의 교류와 그 의의」, 『동방한문학』 82, 동방한문학회, pp. 425-456.
- 10 김묘정(2018), 「竹堂 申濡의 일본체함과 지식의 새 지평: 지식기반과 지식영역의 확대 양상을 중심으로」, 『고전과해석』 25, 고전문학한문학회, pp. 245-283.
- 11 김묘정(2021), 『조선 후기 소북문단의 형성과 소북팔문장』, 학자원, pp. 1-238.
- 12 정영문(2009), 「신유의 『해사록』에 나타난 일본체함과 인식과찰」, 『온지논총』 21, 온지학회, pp. 97-128; 허경진·조혜(2017), 「신유의 일본과 중국 두 나라 인식에 대한 비교 연

에 해당하는 「금강록」(錦江錄)이 연구됨에 따라 목민관으로서의 그의 면모가 밝혀진 바 있다.¹³ 이러한 연구 경향을 종합해 볼 때 죽당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공백으로 남아 있는 지점 중 하나가 바로 그의 유배 경험과 그 과정 중에 남긴 시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죽당은 생애 중 한 차례의 유배 그리고 한 차례의 이배를 겪었으며 그 결과로 문집 제8권 「청원록」과 제9권 「도솔록」을 남겼다. 그럼에도 이 두 권의 유배시는 기존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한 채 일부 언급되는 데 그쳤다. 이에 이 글에서는 이러한 연구 공백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죽당의 유배시를 그의 삶과 문집 전체의 맥락적 흐름 속에서 재검토하면서도, 죽당이라는 한 개인에게 닥친 유배라는 사건이 어떻게 시문학으로 구현되었는지를 살피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먼저 2장에서는 죽당의 삶과 유배와 이배에 대해 자세히 개관한 뒤 3장에서는 죽당의 유배시 속에 드러난 두 국면을 ‘붕괴, 점진적 현실 인식과 자조적 정서의 혼용’, ‘재건, 물품 받기를 통한 관계 속 자기 존재 찾기’로 나누어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2. 죽당 신유의 삶과 문집 그리고 유배(流配)와 이배(移配)

이 장에서는 죽당 신유(1610~1665)의 삶을 살펴본 뒤 그의 문집 『죽당집』에 수록된 유배시를 중심으로 유배 그리고 이배의 성격과 특징을 개관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죽당의 생애에 따른 관직 이력과 특징적 면모를 정리하고 『죽당집』의 편제와 수록 양상을 검토함으로써 죽당의 유

구: 『해사록』 및 『연대록』을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55, 열상고전학회, pp. 325-366; 최식(2023), 「竹堂 申濡의 使行文學 研究: 癸未通信使와 壬辰謝恩使를 중심으로」, 『한문고전연구』 47, 한국한문고전학회, pp. 37-69.

13 정경훈(2023), 「竹堂 申濡의 漢詩 一考: 『錦江錄』을 중심으로」, 『한문고전연구』 47, 한국한문고전학회, pp. 1-36.

배 경험의 문집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고자 한다.

죽당의 본관은 고령(高靈)이며, 자는 군택(君澤), 호는 죽당(竹堂)·니옹(泥翁)이다.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신말주(申末舟)의 7대손으로 증조부는 신언식(申彦湜), 조부는 신념(申諤), 부친은 신기한(申起漢)이고, 모친은 김영국(金英國)의 딸이다. 그는 1630년에 진사(進士)가 되었고 1636년에 별시문과(別試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한 이후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홍문관부교리(弘文館副校理)·이조좌랑(吏曹佐郎)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아울러 1643년에는 통신사(通信使) 종사관(從事官)으로 일본에 다녀왔으며 이후 집의(執義)·동부승지(同副承旨)·우승지(右承旨)를 거쳐 1650년 도승지(都承旨)에 이르렀다. 이 시기 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를 겸하여 『인조실록』(仁祖實錄) 편찬에 참여하였고 1652년에는 사은부사(謝恩副使)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그런데 이후 1657년 죽당은 대사간(大司諫)으로 재직하던 중 상소를 올렸다가 국왕을 능멸하였다는 이유로 한 차례 유배(流配)되었고 같은 해 10월 한 차례 천안으로 이배(移配)된 바 있다. 이후 1659년에는 해배(解配)되어 관직에 복귀하였으며 1661년에는 형조참판(刑曹參判)을 거쳐 호조(戶曹)·예조(禮曹)의 참판을 역임하기도 하였다.¹⁴ 이렇게 본다면 죽당의 생애에서 한 차례의 유배 그리고 한 차례의 이배는 관직 경력의 단절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의 삶과 시문학 세계에 있어서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유배 정황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1)

중부시가 아뢰기를, “낭선군 이우가 본시에 呈狀하였을 때 신 李滄가 입계하여 처치하자고 하였습니다. 동료들과 의견을 모은 후에는 次官이 으레 초고를 만들게 되어 있는데, 죽당이 요에게 말을 전하기를 ‘下官이 마땅

14 김묘정(2021), 『조선후기 소북문단의 형성과 소북팔문장』, 학자원, p. 134.

히 초고를 만들어야 하나 대간의 몸이기에 형세상 불편합니다.’ 하여, 요가 곧 초고를 만들어 보냈습니다. 이렇게 오가는 사이에 자연 날이 저물었는데, 다음 날 죽당이 또 사람을 신에게 보내 말하기를 ‘이 일의 곡절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啓辭 가운데 濫刑殺人이란 네 글자는 말이 너무 과중하니, 고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여, 신들이 네 글자를 없애버리고 法府刑殺이란 네 글자로 바꾸어 통지해 보여 주었더니, 죽당이 그렇게 하자고 하여서, 곧 잘 써서 올렸던 것입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이어 하교하기를, “이 회계를 보건대, 전 대사간 죽당은 마음가짐이 간사하고 임금을 깔보아 방자한 행동을 함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임금보다는 차라리 권세자에게 아침하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다. 이 사람은 비록 꾸짖을 것도 없다 하더라도 그 앉아서 이것을 받는 것이 어찌 남의 신하된 자의 일이겠는가. 이처럼 음험하고 사특하며 불량한 무리를 서울에 둘 수가 없으니, 아주 먼 변방으로 귀양보내라.” [...] 금부에서 죽당을 전남도 康津縣으로 定配하니, 江界府로 고쳐 유배하도록 명하였다.¹⁵

(2)

[...] 찬선 宋浚吉이 또 아뢰기를, “王猛의 말에 ‘관직은 반드시 재능에 합당해야 하고, 벌은 반드시 죄에 합당해야 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실로 정치를 하는 중요한 도리입니다. 신이 일찍이 이를 경연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삼가 생각건대 성명께서 어찌 살피고 생각하지 않으셨겠습니까. 申濡의 일은 비록 잘못된 점이 있지만, 이런 추운 겨울철에 멀리 변방

15 『孝宗實錄』 18, 〈효종 8년 3월 25일 戊辰 3/6 기사〉, “宗簿寺啓曰, “朗善君 俔之呈狀於本寺也, 臣渎以入啓處置爲言. 僚議歸一之後, 次官例當構草, 而申濡送言于臣渎曰, ‘下官當構草, 而身爲臺諫, 事勢難便云.’ 故臣渎即構草以送. 往復之間, 自然日暮, 翌朝申濡又使人言于臣曰, ‘此事曲折, 未能詳知, 而啓辭中濫刑殺人四字, 語涉過重, 改構如何云.’ 臣等刪去四字, 改之以法府刑殺四字通示, 則申濡以爲然, 故遂即繕寫以呈矣.” 答曰知道. 仍下教曰, “觀此回啓, 則前大司諫申濡, 秉心奸回, 視君蔑如, 恣行無狀至此, 實出媚寵之意也. 此人雖不足責, 其坐而受此者, 豈人臣之事乎? 如此儉邪不良之徒, 不可置之都下, 極邊遠竄.” [...] 禁府定配申濡, 於全南道 康津縣, 命改配于江界府. [...]”

으로 유배하여 팔십 노모가 밤낮으로 울부짖고 있으니, 보기에 불쌍할 뿐만 아니라 죄에 맞게 벌을 준다는 뜻에 어긋난 것 같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일이 매우 미워할 만한 점이 있다. 그러나 찬선이 말을 하니, 어찌 감히 유념하지 않겠는가. 곧 해당 부서에 명을 내려 天安으로 量移하도록 하라.”¹⁶

위의 『효종실록』(孝宗實錄) 사료를 통해 죽당의 유배(流配)와 이배(移配) 경위를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인용문 (1)에는 1657년 죽당이 대사간(大司諫)으로 역임할 당시 상소를 올리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가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중부시(宗簿寺)가 아뢴 내용에 따르면 죽당이 초고를 만들지 않고 일의 곡절을 자세히 살피지 않은 채 ‘남형살인(濫刑殺人)’이라는 표현을 ‘법부형살’(法府刑殺)로 고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지점은 효종의 견해인데, 효종은 죽당의 처신을 임금을 업신여기고 방자하게 행동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죽당을 음험하고 사특한 인물로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효종은 죽당의 마음 씀과 글을 씀이 모두 간교하여 대사간(大司諫)의 간(諫)자는 곧 간(奸)자로 써야 할 것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죽당을 부정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¹⁷ 나아가 애초에 강진현으로 정배하려던 처분을 변경하여 강계부로 유배하도록 명하는 것으로 결정을 변경한 사실도 파악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인용문 (2)를 통해서도 이배 경위를 파악할 수 있는데, 송준길(宋浚吉)이 죽당의 죄를 언급하면서도 변방으로 유배 보낸

16 『孝宗實錄』 19, <효종 8년 10월 13일 壬午 3/3 기사>, “[...] 又曰, “王猛之言曰, ‘官必當才, 罰必當罪.’ 此實爲治之要術也. 臣曾以是及於筵中, 伏想聖明, 其能省念耶. 申濡之事, 雖有所失, 而當此寒天, 遠配邊地, 八十老母, 日夜號泣, 不但所見矜惻, 恐有乖於當罪之意也.” 上曰, “事甚可惡. 然贊善有言, 敢不體念. 卽命該府, 量移天安.” [...]”

17 『孝宗實錄』 18, <효종 8년 3월 25일 戊辰 3/6 기사>, “上曰, “自國家用罰, 則無論事之是非, 輒以爲非, 此則無他, 世無公道而然也. 申濡於當初, 若果立異, 則有何不可, 而用意下字, 奸巧莫甚. 大司諫之諫字, 直以奸字書之可也.”

형벌의 과중함 그리고 팔십 노모를 들어 아뢰자 효종이 천안으로 이배를 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죽당의 유배가 당대 효종의 정치적 판단과 부정적인 인식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죽당의 문집 『죽당집』을 살펴보기로 한다. 문집은 죽당 생애의 궤적을 대체로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죽당집』은 총 15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기순으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제1권부터 제10권까지는 시를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각 권은 특정 시기 별로 나누어져 있으면서도 머문 공간을 기준으로 명칭이 부여되어 있고, ‘~록(錄)’의 형식을 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먼저 문집 편제를 순차적으로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죽당집』 수록 작품 현황을 살펴보면, 1권에는 「심관록」(瀋館錄), 「구성록」(駒城錄), 「옥당록」(玉堂錄)이 편제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각각 심양(瀋陽) 생활, 부친 방문을 위한 여정, 홍문관(弘文館) 재직 시기에 창작된 시편들이 수록되어 있다. 다음으로 2권 「해사록」(海槎錄)에는 통신사(通信使) 서장관(書狀官)으로 일본에 다녀오는 과정에서 지은 시가 담겨있는데 주로 사행에 임했을 당시 일본에서 창작한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4권과 5권에 수록된 「은대록」(銀臺錄), 「금강록」(錦江錄), 「낙정록」(駱亭錄), 「용만록」(龍灣錄) 등은 승정원(承政院) 근무 시기, 외직 근무 시기, 김신국(金愼國) 별서에서 머문 때, 도승지(都承旨) 시절 지은 것 등 대체로 관료 역임 시기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시편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정치적 혹은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는 가운데 창작한 시문학 작품들이 대다수 포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6권에는 옥과현(玉果縣)에서 모친을 뵈고 난 후 서울에 머물며 창작한 작품들이 담겨있으며, 7권에는 1653~1655년에 창작한 작품이 주로 수록되어 있는 동시에 1653년 봄에 옥과현에서 모친을 뵈고 오는 길에 지은 시, 1653년 가을 이후로 낙산(駱山) 동쪽에 거처하는 동안 창작한 시, 1654년 1월 개성(開城) 유수(留守)가 되어 이듬해 3월 파직될 때까지 지은 시, 1655년 여름 병조 참판(兵曹參判)에 제수되고부터 다음 해 봄까지 낙

[표 1] 『죽당집』 수록 작품 현황¹⁸

문집 편제	수록 내용	문집 편제	수록 내용
1卷	瀋館錄 69題	7卷	雪山錄 12題
	駒城錄 13題		駱居後錄 8題
	玉堂錄 11題		松都錄 50題
2卷	海槎錄 148題		騎省錄 25題
3卷		8卷	淸源錄 113題
4卷	銀臺錄 10題	9卷	兜率錄 84題
	拾遺 3題	10卷	養痾錄 87題
	玉川錄 19題		交州錄 20題
	銀臺後錄 10題	11卷	疏 31篇
	錦江錄 73題	12卷	製進文 11篇
駱亭錄 24題	箋文 5篇		
龍灣錄 22題	啓辭 7篇		
駱亭後錄 6題	狀 5篇		
5卷	湖行錄 21題	13卷	序記 10篇
	駱亭續錄 14題		雜文 3篇
	湖行後錄 6題		祭文 11篇
	駱居錄 25題	14卷	墓碣 3篇
6卷	燕臺錄 120題		墓誌 3篇
			行狀 4篇
		15卷	부록

산에 머물면서 지은 시가 수록되어 있다. 이에 비해 이 글에서 주로 살펴보고자 하는 8권 「淸원록」(淸源錄)과 9권 「도솔록」(兜率錄)은 차별적 지점을 지닌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권에는 죽당이 1657년 유배에 처해진 당시 창작한 작품이 담겨있다. 이에 먼저 「淸원록」에는 1657년 4월 대사간(大司諫)

18 『竹堂集』의 문집 수록 현황은 한국문집총간 해제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申濡, 『竹堂集』, 韓國文集叢刊 31, 민족문화추진회, 1689.

으로 상소를 올리다 유배되어 10월에 천안(天安)으로 이배(移配)될 때까지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으며, 「도술록」에는 1657년 10월 천안으로 이배되고부터 1659년 해배(解配)되어 서울로 돌아올 때까지 지은 작품이 담겨 있다.

이에 지금까지 논의한 바 있듯 『죽당집』의 편제와 수록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은 유배라는 조건 속에서 그의 삶과 문학 세계가 어떠한 방식으로 재구성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전제적 측면에서의 논의라 할 수 있다. 또한 유배시가 하나의 독립된 ‘~록’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 죽당이 유배 경험을 자신의 삶과 시문학에서 하나의 주요한 사건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여겨진다. 이와 같은 문집 편제 방식에 비추어 볼 때 죽당의 유배시는 『죽당집』 문집 내에서 일정 부분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죽당의 시문학 세계 중에서도 주로 사행 관련 시문학이나 외직 시기 시문학이 논의의 중심에 있었기에 「청원록」과 「도술록」은 상대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하겠다. 이에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8권 「청원록」과 9권 「도술록」에 수록된 유배시를 중심으로 죽당의 유배 경험이 시적으로 형상화된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유배시는 특정 시기에 창작된 작품인 동시에 정치적,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분리된 상황 속에서 한 개인이 자신의 존재를 재인식하고 삶의 방향을 다시 설정해 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3장에서는 죽당 유배시의 특징을 ‘붕괴, 점진적 현실 인식과 자조적 정서의 혼용’, ‘재건, 물품 받기를 통한 관계 속 자기 존재 찾기’로 나누어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3. 죽당 신유 유배시(流配詩)의 두 국면

3.1. 붕괴: 점진적 현실 인식과 자조적 정서의 혼용

죽당의 유배시에서 가장 먼저 확인되는 양상은 유배라는 현실을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또 응시하기보다는 이를 우회적으로 비켜서 사유하려는 태도이다. 이는 현실을 외면하는 양태라기보다는 기존에 지니고 있던 삶의 질서가 무너진 상황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규정하지 못한 채 방황하는 혼란에 가깝다고 하겠다. 그에 따라 죽당이 단번에 바로 현실을 인식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서서히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곳곳에서 포착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상황에서 죽당이 꿈속에서 자신의 처지를 반추하기도 하고 또 자조적인 감회를 우회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유배라는 현실을 인식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시 작품을 통해 붕괴의 국면을 살펴보기로 한다.

1丙申春末間	병신년 봄이 끝날 무렵
余夢行到一處	나는 꿈속을 거닐다 한 곳에 이르렀는데
不知何所	어딘지 알 수 없었네
或云江原道之原州官	혹 말하길 강원도 원주 관아라 하였으나
5而所舍非公廨	그 가옥은 관청 건물이 아니었네
身若爲牧伯	몸은 마치 수령인 듯 하나
而行李寒悴	행색이 남루하고 초라하여
又非官人	또한 벼슬아치가 아니었네
獨二三候吏趨走門外而已	다만 두세 명의 하급 관리만이 문밖을 분주히 오갈 뿐이었네
10環視四面	사방을 둘러보니
衆山簇立	뭇 산이 뽕뽕이 서 있었네
西北一峯	서북쪽의 한 봉우리

- 尖峻突起 빼죽이 높이 솟아 있었네
 有水申流而駛 물은 길게 뻗어 흐르는데 물살이 거세고
 15殊無清絕景致 특별히 맑고 빼어난 경치는 없었네
 而意况鬱塞 이에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하였네
 吟覓一聯云四山當面起 나직이 한 연구를 읊조리니 네 산 마주해 서 있고
 一水決中流 한줄기 물이 가운데를 가르며 흘렀네
 篇未終而覺 시문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잠에서 깨어나
 20當時以爲夢寐間偶然爾 당시에는 꿈속에서의 우연일 뿐이라 여겼네
 今春負罪竄江界府 올봄에 죄를 짊어지고 강계부에 유배되었고
 到此山川及家舍 이 산천과 사람이 사는 집에 이르르니
 一如夢中所履 마치 꿈속에서 거닐던 곳과 같았네
 所謂江原者 이른바 강원이라 하는 곳이라네
 25江乃江界之江字 강은 곧 강계의 강 자이고
 原州者 원주라는 것은
 乃清源之源 곧 청원의 원이네
 石州之州字耶 주 자는 석주의 주인가
 考諸輿地郡名 여러 땅의 군 이름을 살피건대
 30即可徵焉 곧 증험할 만하니
 豈所謂識耶 이것이 이른바 예언이라는 것인가
 理有前定而不可違者如是夫 이치에는 미리 정해진 것이 있어 거스를 수 없음이 이와 같구나
 昔奇服齋夢中之作 옛날 기복재 기준이 꿈속에서 지은 것이
 正符吉城所見 길성에서 본 것과 정확히 부합하였고
 35其詩見續靑丘風雅及國朝詩刪 그 시가 속청구풍아와 국조시산에 있음을 보면
 古人亦以詩識不爲誣也 옛사람 또한 예언을 허망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네
 余詩未竟 내 시가 아직 끝나지 않아
 今乃續成絕句 이제 이에 절구를 덧붙여 완성하고자 하니
 以識云爾 기록하여 남길 뿐이네¹⁹

이에 먼저 <속몽시>(續夢詩) 작품을 통해 유배에 처한 죽당의 내면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위에 인용한 작품은 「청원록」(淸源錄)에 실려 있는데 「청원록」 서문에 당시 죽당이 정유년 4월 대사간으로 상소를 올린 뒤 건책을 받아 강계로 유배되었고 같은 해 10월 이배되어 천안으로 옮겨졌음을 파악할 수 있다.²⁰ 또한 <속몽시>라는 시제에서 드러나듯이 이 작품은 꿈속의 일을 시로 옮겨둔 것이다. 아울러 시 말미 오언절구(五言絕句) 형식으로 내용이 부기되어 있는데,²¹ 이를 통해 네 산이 마주하여 솟고 하나의 물줄기가 가운데로 흐르는 풍경 속에서 오늘날 강변에 유배된 죽당이 꿈속을 노닐며 이 시를 지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본격적으로 시를 살펴보면 이 작품은 꿈속 체험을 기록한 것인데 서사적인 스토리 형식을 활용해 장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1~4구를 보면 시인은 꿈속에서 자신이 위치한 곳을 분명히 인식하지 못한 채 관아와 유사한 공간을 배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공간 속 자신은 모두 기대와 어긋난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있는데 ‘비공해’(非公解), ‘비관인’(非官人)이라는 표현을 통해 이곳은 관청이 아니며 시인 또한 외직 문관이나 관인으로 규정되지 않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아울러 5~9구에서는 그가 꿈속에서 남루한 행색을 한 벼슬아치가 아닌 모습임을 스스로 자각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이 부분은 죽당이 공간과 신분이 모두 확정되지 않은 자신의 상태를 시적으로 그려낸 것으로, 유배 직후 죽당이 처한 현실과 인식의 혼란을 보여준다. 다음 부분인 10~18구에는 꿈속에서 목도한 산천이 펼쳐져 있는데 이는 꿈과 현실의 모호한 경계를 표상한다. 19~20구에 이르면 죽당이 꿈과 현실의 경계 속에서 이 모든 것이 꿈을 꾸는 동안의 우연이라고 여기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21~33구에는 유배지의 실제 풍경이 겹치며 지명에 대한 해석이 덧붙여져 있는데 강원이라는 명칭을

19 申濡, 『竹堂集』, 「淸源錄」, <續夢詩>.

20 申濡, 『竹堂集』, 「淸源錄」, “淸源江界別號. 丁酉四月. 以大司諫被謫竄江界. 十月量移天安.”

21 申濡, 『竹堂集』, 「淸源錄」, <續夢詩>, “四山當面起, 一水決中流, 今日江邊謫, 依然夢裡遊.”

강계의 ‘강’(江)과 청원의 ‘원’(源)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지명의 구성과 실제 체험을 연결함으로써 꿈속 장면과 현실의 유배지를 병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이러한 시상 전개는 유배 경험을 우연적 사건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이미 예정된 사건으로 간주하려는 죽당의 태도를 보여준다. 아울러 꿈과 현실이 분리되지 않고 서로 겹쳐지면서 유배라는 사건은 사전에 예견된 일 중 하나로 그려지고 있다. 이에 34구에서는 기복재(奇服齋) 기준(奇遵)을 예로 들어 꿈속의 일이 현실과 부합된 일을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실제로 기준과 관련해서는 그가 조정에 있을 때 꿈에서 어떤 곳에 이르러 〈기몽〉(記夢)²²이라는 시를 짓고, 이후 얼마 후 죄를 얻어 유배 가게 된 일화가 전한다.

이렇게 본다면 위의 작품 〈속몽시〉는 유배에 처한 현실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기보다 꿈속 서사를 통해 점진적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겠다. 죽당은 꿈속에서 공간과 신분의 혼돈을 마주한 이후 자신의 처지를 점진적으로 자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 유배 초기 죽당이 현실을 점진적으로 인식하고 수용하는 방식을 일정 부분 보여준다고 하겠다.

身事極邊千里	신세는 변방 천리
生涯薄酒一甌	생애는 막걸리 한 잔
何處世間名利	어느 곳에 세상 명리가 있는가
幾時湖外扁舟	어느 때에나 호수 너머에서 조각배 탈까 ²³

다음으로 살펴볼 작품은 「청원록」에 수록된 〈육언〉(六言)으로, 편제상이 작품 역시 1657년 4월 대사간으로 상소를 올린 뒤 유배된 이후 같은 해

22 奇遵, 『德陽遺稿』, 〈記夢〉, “異域江山故國同, 天涯垂淚倚孤峯. 潮聲寂寞河關閉, 木葉蕭條城郭空. 野路細分秋草外, 人家多住夕陽中. 征帆一去無回棹, 碧海蒼蒼信不通.”

23 申濡, 『竹堂集』, 「淸源錄」, 〈六言〉.

10월 천안으로 이배되기 전후에 창작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시에서 죽당은 자신의 처지를 기구와 승구에서 ‘변방 천 리’와 ‘막걸리 한 잔’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관직과 명리가 따르는 속세와 떨어진 현실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곧, 죽당은 세속적 명예와 이익을 더 이상 추구할 수 없는 상황을 인정한 채 그로부터 떨어져 나온 자신의 현재 상태를 명사형으로 짧게 그려낸 것이다. 이후 전구와 결구에 이르면 충돌하는 자아 인식을 엿볼 수 있는데, 죽당은 세상의 명리를 그려보다가도 어느 때에 조각배를 탈 수 있을 것이냐는 물음을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조각배는 유배지와 분리된 또 다른 공간에 대한 지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이는데, 죽당이 마음속에 그려본 또 하나의 삶의 방향을 가리킨다고 여겨진다. 이에 구체화해보면 죽당 안에는 세속의 명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관직에서 물러나 한가로이 노닐고 싶은 마음이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이 작품에서 확인되는 죽당의 내면은 유배를 겪으며 관직에서 쫓겨난 상태와 이 삶을 어떻게 인식하고 또 앞으로 살아낼 것인가를 두고 충돌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육언〉은 죽당이 유배를 겪으며 현실을 인식하고 정리하는 과정 그 자체를 보여주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經慙拾紫賦非玄 붉은 것 주워 놓고 검지 않다고 한 것 부끄러운데
 身世誰言謫降仙 이 신세를 누가 유배 온 신선이라 말하겠는가
 自笑暮年叨諫職 우습구나 늘그막에 간직을 외람되이 맡은 것
 偶因文字落窮邊 우연히 글 때문에 궁벽한 변방에 떨어졌구나
 回腸已斷三聲淚 원숭이 세 번 우는 소리에 눈물 흘러 창자 이미 끊어졌으니
 繞指寧論百鍊堅 백 번 단련한 강철이 손가락 감는 굳셈을 말해 무엇하랴
 獨有故人勞問訊 다만 옛 벗이 수고롭게 안부를 물어 오니
 慙慙不翅贈寒氈 은근한 마음 추위 막는 이불을 보내주는 것보다 낫구나²⁴

24 申濡, 『竹堂集』, 「淸源錄」, 〈次韻澄甫方伯見寄〉.

다음으로 살펴볼 〈차운정보방백견기〉(次韻澄甫方伯見寄) 시는 앞서 검토한 작품과 마찬가지로 「청원록」에 수록되어 있다. 이 작품에는 앞선 시편에서 드러난 인식의 혼란에서 더 나아가 자조적 정서가 표출된 양상이 포착된다. 이에 수련과 함련에서 죽당은 상소를 올린 뒤 유배된 경위를 스스로 비웃는 동시에 자신의 처지를 ‘유배된 신선’으로 미화하여 바라보는 외부의 인식조차 조소할 만한 것으로 환치시키고 있다. 이는 유배를 초월적 경험이나 상징적 의미로 해석하여 현재 상황을 합리화하여 안주하기보다는 현실을 직시함으로써 현재의 처지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려는 태도라고 생각된다. 경련에 이르면 감정이 더욱 고조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죽당은 자신의 고통을 원숭이의 울음과 끊어진 창자로 형상화하는데, 이러한 표현은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 속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심경을 있는 그대로 토로한 것이라 생각된다. 아울러 고사를 활용하면서도 단단한 강철을 들어 지난날의 강직함도 무력해진 현재 상태를 언급해 붕괴된 자신을 직시하고 있다. 나아가 미련에서는 옛 벗이 물어 오는 안부라는 정서적 위안의 소중함과 귀함을 제시하고 있는데, 유배된 상황 속에서도 인간관계를 안부를 통해 자신의 붕괴된 현실을 일부나마 지탱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卜宅遠同賈	거처를 정해 집을 지으니 예전의 가의와 같은데
誰人還比陶	누가 도리어 도연명에 견주겠는가
文辭慚放逸	글이나 지으며 방일하게 사는 것 부끄럽고
生計近蕭騷	생계는 거의 쓸쓸하고 궁핍하네
覆屋依林靜	지붕은 숲에 기대 고요하고
巡簷岸幘高	처마는 두건을 젖힌 듯 높다랗네
新詩堪朗詠	새로 쓴 시 낭랑하게 읊을 만하니
未覺唱酬勞	시를 주고받는 수고로움 깨닫지 못하겠네 ²⁵

25 申濡, 『竹堂集』, 「兜率錄」, 〈草堂垂成 李子建寄來一律 信筆却奉〉.

앞선 시에서 확인한 죽당의 정서는 그가 1657년 10월 천안으로 이배된 이후의 작품이 수록된 「도솔록」에서도 지속적으로 확인된다. 위의 작품을 살펴보면, 수련에서 죽당은 이배하여 천안에 거처를 마련한 자신의 처지가 가의(賈誼, BC 200~168)와 유사함을 인정하면서도 도연명(陶淵明, 365~427)과는 다름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처지를 정치적 이상이 좌절된 가의와 비견하면서도 관직을 떠나 은거를 택한 도연명의 은일적 삶과 자신의 삶을 구별 짓기 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함련에 이르면 죽당이 글을 쓰며 지내는 자신의 모습을 방일(放逸)이라는 시어를 사용하여 자조하고 있으며, 자신의 생계를 소소(蕭騷)하다고 언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현재 이배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삶이 불안정한 상태이며 죽당이 여전히 자신의 처지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를 정리해보면 첫 시기 유배시에서는 죽당이 유배라는 현실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채 이를 꿈과 현실의 모호한 경계 안에서 인식하며 점진적으로 현재 상황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는 기존의 삶의 질서가 해체된 국면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규정하지 못한 채 혼란을 겪는 인식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나아가 이후 죽당은 자신을 자조적으로 인식하며 현실을 직시함으로써 현재의 처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면모는 첫 시기 유배와 두 번째 시기 이배의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포착된다. 종합해보면, 죽당은 유배라는 사건 안에서 ‘붕괴’의 국면에 놓이게 되며 그의 유배시는 점진적 현실 인식과 자조적 정서의 혼용이라는 양상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3.2. 재건: 물품 받기를 통한 관계 속 자기 존재 찾기

죽당의 유배시에서 확인되는 또 다른 특징으로는 「청원록」과 「도솔록」에 수록된 유배시 가운데 유독 ‘사(謝)~’ 형식 혹은 물건을 받은 내용을 기록한 한시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아울러 유배에 처한 이후 그

리고 이배된 이후 전시기에 걸쳐 서신과 물품을 받은 정황이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실정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유배 전시기에 걸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물품의 증여와 답례 양상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형식의 작품이 다수 포착되는 이유를 밝히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청원록」·「도솔록」에 수록된 물품 사례시²⁶ 작품 현황을 제시해보면 [표 2]와 같다.

[표 2]에 해당하는 「청원록」·「도솔록」에 수록된 물품 사례시 작품 현황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청원록」 113제, 「도솔록」 84제 총 197제 가운데 21제가 답례하는 작품으로 작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전체 유배시 작품 가운데 약 11%에 해당하며, 양적으로 일정 부분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여겨진다. 아울러 시제에 표명되어있는 내용을 비롯해 시상의 전개 양상을 토대로 논의해보면 몇 가지 유형으로 대별 가능하므로 유형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첫 번째로는 물품 사례시 가운데서도 선물에 대한 감사가 시제에 직접적으로 명시된 유형이다. 이 유형으로 분류 가능한 작품들은 물품을 주고 받은 내역과 감사의 표현이 시제에 표상되어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대체로 ‘사(謝)~’, ‘~사(謝)’ 형식의 제목을 취하고 있는 작품들을 이 범주 안에 포섭시켜 논의할 수 있다. 이에 [표 2]에서 유형 ‘가’로 분류한 작품들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와 같은 작품에는 죽당이 받은 물품이 상세하게 나열되어 있으며 해당 물품이 실질적으로 유배지에서 죽당의 삶에 있어 어떠한 측면에서 도움이 되었는지도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두 번째로는 물품 사례시 가운데서도 ‘사(謝)~’, ‘~사(謝)’ 형식의 시제

26 이 글에서는 물품을 받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작품을 물품 사례시라는 용어로 정의하였음을 밝히는 바이다. 한시에서 사례시라는 용어는 아직까지 온전히 정립되지 않은 개념이나, 한시에서 확인되는 유형 중 하나이므로 이와 같이 규정하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아울러 유배시 연구에서 사례시와 같은 유형에 주목한 기존 연구 성과가 없는 실정이므로, 이 글에서는 사례시를 논의 대상으로 삼으면서도 그 특징적 면모에 주목하도록 하겠다.

[표 2] 「청원록」·「도솔록」에 수록된 물품 사례시 작품 현황

연 번	시제	유 형	수 록 집	연 번	시제	유 형	수 록 집
1	簡謝渭源權使君 以書惠 秬蜀米 黃鼠毛 靑硯石	가	「淸源錄」	12	謝李使君雲根惠淸酒黃 肉	가	「兜率錄」
2	任慶翼閔余無室無衣 以 白紬袍寄送 述長句以謝	가	「淸源錄」	13	謝金令惠三種	가	「兜率錄」
3	謝澄甫方伯寄惠漆絲巾	가	「淸源錄」	14	謝李仲宣惠新麥米 活鯽 魚	가	「兜率錄」
4	僑舍主人送甜瓜	나	「淸源錄」	15	謝徐教官漢柱有書 因餉 軟鷄浮蟻酒	가	「兜率錄」
5	鄉人金峴等餽燒酒甜瓜 牛肉 分寄咸崔申諸秀才 仍贈十二韻	나	「淸源錄」	16	謝牙山李使君挺岳寄惠 九種	가	「兜率錄」
6	滿浦以馬軍走送大魚一 頭	나	「淸源錄」	17	謝槐山羅使君以俊遣使 書存 寄惠白粒 香油 淸 醬 西瓜 燒酒等物	가	「兜率錄」
7	田舉人逸民以新稻米來 餉 書贈長律	나	「淸源錄」	18	謝南陽鄭使君植寄惠小 螺醢一缸 蘇魚十編 民魚 二尾 石秀魚二束 沉絡蹄 四十箇 蛤醢一盒等物	가	「兜率錄」
8	謝澄甫方伯寄惠蕉葉丹	가	「淸源錄」	19	濟上人重訪 餉以拌末川 椒 獼猴桃兩箇 書此以歸	나	「兜率錄」
9	謝澄甫方伯惠雪綿襦衣 新絮復袴 白布單衫褌 藥 裹 窓戶紙 民魚 石魚等 物 十二韻	가	「淸源錄」	20	都事到郡 餉官酒一壺 卽 白軒李相公所屬也 小斟 賦一絕 聊以識感	나	「兜率錄」
10	渭原太守送燒酒一斗 錦 鱗魚八尾 烹魚酌酒 與二 崔同飲喫 走筆成詩 因以 寄謝	가	「淸源錄」	21	都事覆審 將到天安 馳書 先問謫居 寄惠菊醢一瓶 蓋恨前日郡酒味薄也 率 題短律却奉	나	「兜率錄」
11	聞任判官慶翼赴安州任 因使付候札 又投六百字 詩牋 計纔度嶺數日間 慶 翼已有再度書問 寄惠白 粒 生梨 生栗 民魚 石魚 牛脯 蠃醢等物 卽書長律 一首志喜 因擬寄謝八韻	나	「淸源錄」				

로 구성되지는 않아 감사의 표현이 전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으나, 물품을 받은 경위나 내용을 중심 소재로 삼아 창작된 유형이다. 여기에는 [표 2]에서 유형 ‘나’로 표시해 둔 작품이 포함되는데, 이들 시는 물품 주고받기라는 행위가 하나의 기점이 되어 식사, 음주, 대화 등으로 전개된다는 특징을 보인다. 아울러 ‘사(謝)~’, ‘~사(謝)’ 형식으로 감사를 시체에 표면화하지 않았을 뿐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물건 주고받기에 대한 감사가 시 전반에 자연스럽게 포진되어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청원록」과 「도솔록」에 수록된 물품 사례시는 시체의 형식과 형상화 방식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하겠다. 이에 어떤 작품에는 감사한 내용이나 받은 물품이 시체에 드러나고, 또 다른 작품에서는 받은 물품에 대한 감사가 시 내용에 포진되어 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죽당이 왜 이러한 작품들을 다수 창작했는가에 대한 의문을 풀어야 한다고 하겠다. 실질적으로 작품을 살펴보면 물품은 기본적으로 유배지라는 척박한 환경을 조금이나마 윤택하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차적으로는 물품을 기점으로 죽당이 물품을 보내온 사람과 일정 부분 관계 맺기를 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렇게 본다면 유배지에서 받은 물품은 생계 수단의 일부이기도 하면서 유배지에서 고립되지 않고 사회적 관계망 안에 위치시키려는 노력 중 하나로 여겨지는 바이다. 더 나아가 유배지에서 물품을 받는 행위는 이를 통한 관계 속 자기 존재 찾기라는 양상과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물품 사례시는 유배시 전반에 나타나는 ‘재건’의 국면을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지점으로 판단된다. 이에 한시 작품을 분석함으로써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기로 한다.

1緘書往日常兼物	지난날 편지 보낼 때면 항상 물건을 함께 보내주시니
物到今書寵更偏	이번 편지와 함께 온 물품들은 은혜가 더욱 깊구나
勝白雪綿襦着厚	눈처럼 흰 솜저고리 옷 입으니 두툼하고

似楊花絮袴裝妍	버들 같은 양화 솜바지 꾸밈이 곱고 아름답네
5衫裁細葛輕如羽	가는 갈포로 지은 적삼 가벼움이 깃털과 같고
褌截同機色並鮮	같은 배틀에서 짠 잠방이 색도 함께 선명하네
遺療疾疢分藥裹	약봉지 보내주어 목은 병을 낫게 해주고
教塗窓戶撤藤牋	질 좋은 등전지 잘라 보내어 창호를 바르게 하였네
塩魴腹大三知數	배가 크고 볼룩한 절인 민어 세보니 세마리오
10蓴鱸鱗纖五計編	가느다랗게 말린 조기 세보니 다섯 묶음이네
[...]	
23關外故交多問訊	관문 밖 옛 친구들 안부 물어오는 것 많은데
意中誰似苦纏綿	가슴 속에 괴롭게 얹히고 설킨 이 누구인가 ²⁷

먼저 살펴볼 작품은 「청원록」에 수록된 작품으로 유배 기간 중 정보(澄甫) 유념(柳諄, 1608~1667)이 보낸 다양한 물품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현한 24구의 장편시이다. 이는 유형 ‘가’로 분류할 수 있는 작품으로, 시체에 죽당이 유배지에서 솜 저고리와 솜바지, 흰 베로 만든 홀저고리와 잠방이, 약, 창호지, 민어와 석어 등의 물품을 받은 사실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아울러 시 전반부인 1~10구에 담긴 내용을 살펴보면, 받은 물품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는데 솜저고리의 포근함, 솜바지의 고운 자태, 가벼운 적삼, 고운 빛깔의 잠방이가 순차적으로 그려져 있다. 아울러 유배지에서 병든 몸을 치유할 약과 유배지의 거처를 정비할 수 있는 등나무 종이에 대한 언급이 드러나며, 이어서 민어와 조기로 대별되는 식량을 받은 사실도 모두 시 안에 나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주목할 부분은 시가 시작되는 1~2구 그리고 시상이 마무리되는 23~24구라고 할 수 있으므로 각각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1~2구에는 물품을 받게 된 경위

27 申濡, 『竹堂集』, 「清源錄」, 〈謝澄甫方伯惠雪綿襦衣 新絮復袴 白布單衫褌 藥裹 窓戶紙 民魚石魚等物 十二韻〉.

가 기술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죽당이 유심으로부터 편지와 물품을 늘 함께 받아왔으며 유배지에서 물품을 받은 은혜를 더욱 각별하게 여겼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죽당에게 있어 물품은 유배지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인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표 기능을 담당한다. 이러한 죽당의 심리 상태는 마지막 부분인 23~24구에 더욱 잘 반영되어 있는데, 죽당은 관문 밖의 옛 벗들이 보내오는 물품과 서신을 통해 자신이 여전히 잊혀지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렇게 본다면 유배라는 상황 속 어려운 처지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관계를 통해 전달된 물품들은 죽당을 고립된 존재가 아닌 다시 사회적인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일정 부분 담당한다고 생각된다. 특히 죽당은 위의 시에 잘 드러나듯 소북(小北)계열 문인인 유심과 유배에 처하기 전부터 각별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따라 유심과 주고 받은 작품이 다수 확인된다.²⁸ 아울러 이외의 한시 작품을 통해서도 죽당이 유배지에서 여러 차례 유심에게 물품을 받는 동시에 시적 교류를 이어온 것으로 보인다.²⁹

1 牋札纔經狄嶺愁 편지가 가까스로 적령을 넘어온 것이 근심스러웠는데
問書重已魯江投 안부 편지 거듭 이미 노강에 던져졌구나
卽知上後平安在 윗사람 아랫사람 평안하다는 것을 잘 알겠고
仍荷邊頭惠寄優 변방까지 거듭 보내준 후한 정성에 이내 은혜를 입네
5 南地謾思梗似玉 남쪽 땅의 메벼가 옥과 비슷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中厨始見飯如流 부엌에서는 흐르듯 윤기 나는 밥을 처음 보네

28 申濡, 『竹堂集』, 「駒城錄」, 〈送柳澄甫謫興海 余往年入瀋之日〉; 「玉堂錄」, 〈雪夜澄甫宅對酒〉; 「駱亭續錄」, 〈東門口占 別嶺南伯柳滄澄甫〉; 「養痾錄」, 〈任獻納慶翼宅盆梅正開 純夫侍郎 澄甫留後共飲 絕句六首 呈座上求和〉, 〈澄甫宅酒席賦一律〉, 〈自嬰沉痾 終夏不得喫冷前夕偶嚼茄子 未半 卽患肺寒 痰嗽達朝 忽思江都梔子燒酒極有壓冷之功 信筆吟成絕句一首 寄澄甫留守 澄甫時觀京 留墨寺洞第〉, 〈九月十九日 澄甫宅泛菊〉.

29 申濡, 『竹堂集』, 「清源錄」, 〈謝澄甫方伯寄惠漆絲巾〉, 〈疊前韻呈澄甫方伯 促寄草書〉, 〈謝澄甫方伯寄惠蕉葉丹〉, 〈次韻澄甫方伯見寄〉.

- 梨津乍嚙舌蘇肺 이진에서 처음 삼키니 내 망가진 폐가 소생하는 듯하고
 栗顆初開俗駭眸 밤을 처음 까니 사람들 눈동자 휘둥그레해지네
 鰾拆尙疑膠在腹 민어 부레 가르니 뱃속에 아교인가 의심하고
 10 薰乾何得石藏頭 건어물은 석수어 조기 머리를 어찌 잘 말렸는가
 應加薑桂肥牛拆 소고기 육포는 응당 생간 계피로 양념을 했겠고
 想下醃齏紫蟹揉 붉은빛 게젓은 잔 소금으로 간했을 것이네
 品味揜非窮塞有 맛이 모두 궁벽한 변방에 있을 것이 아니고
 風流轉憶故山秋 풍류 감도니 옛 산의 가을 생각나네
 15 慙慙滿紙加餐字 편지에 가득히 은근히 밥 많이 먹으라는 ‘찬’이라는 글자 보니
 不獨空言戀舊遊 단지 공언히 예전 놀던 일 그림다는 것이 아니구나³⁰

이어서 살펴볼 작품은 「청원록」에 수록된 것으로, 이는 경익(慶翼) 임한백(任翰伯, 1605~1664)이 물품을 보내온 데 대해 지은 장편 사레시이며, 유형 ‘가’로 분류할 수 있다. 임한백은 죽당과 동일한 소북계열 인물로, 오랜 기간 교유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인다.³¹ 특히 죽당이 유배에 처함에 따라, 집이 없고 또 옷조차 없는 상태를 안타깝게 여겨 물품을 자주 보내온 것으로 보인다.³²

작품을 살펴보면, 먼저 1~2구에서는 편지가 힘준한 지형으로 대별되는 적령(狄嶺)을 넘어 물품과 편지가 전달되는 과정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변방에 해당하는 유배지의 공간적 특징과 심리적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당은 유배에 처한 자신에게 편

30 申濡, 『竹堂集』, 「清源錄」, 〈聞任判官慶翼赴安州任 因使付候札 又投六百字詩牋 計纔度嶺數日間 慶翼已有再度書問 寄惠白粒 生梨 生栗 民魚 石魚 牛脯 鱓醢等物 卽書長律一首志喜 因擬寄謝八韻〉.

31 申濡, 『竹堂集』, 「駒城錄」, 〈題慶翼扇面〉; 「駱亭續錄」, 〈送任慶翼之星山任〉; 「養痾錄」, 〈任獻納慶翼宅盆梅正開 純夫侍郎 澄甫留後共飲 絕句六首 呈座上求和〉, 〈贈別任慶翼赴吉州任〉.

32 申濡, 『竹堂集』, 「清源錄」, 〈任慶翼悶余無室無衣 以白袖袍寄送 述長句以謝〉.

지와 물품이 반복적으로 도착하고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유배라는 단절된 상황 속에서도 관계 맺기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3~4구에 이르면 죽당은 임한백으로부터 전달된 서신을 통해 주변의 평안함과 안부를 확인하고 있는 동시에 변방으로 대변되는 유배지에서 물품을 받으며 각별한 정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5구부터는 쌀, 과일, 생선, 육포, 계장 등 받은 음식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며, 유배 생활 속에서 이와 같은 음식들이 생활을 윤택하게 하면서도 또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죽당이 옛 산의 가을을 떠올리고 있다는 점은 해당 물품이 죽당의 정서를 채워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15~16구에 이르면, 죽당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사례시를 지으며 예전에 노닐던 곳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유배지에 도착하는 편지와 물품은 오래된 지인과 끊기지 않는 관계 맺기를 보여주는 동시에 죽당에게 있어 심리적 위안을 제공하면서도 한 편으로는 자기 존재를 확인하게 한다고 하겠다.

1虜酒出燒鍋	오랑캐 술 꺼내 솥에 데우니
白色看若空	흰 빛깔은 허공처럼 맑은 것 보네
江魚爛錦紋	강의 물고기 아름다운 무늬 흐트러지고
細鱗驚玲瓏	가는 비늘 영롱함에 놀라네
5知是渭州守	알겠구나, 위원 태수가
寄書問泥翁	편지를 보내 나에게 문안한 것임을
呼奴煮鱸內	종을 불러 솥 안에 고기를 삶게 하고
命婢注盞中	여종에게 잔에 술을 따르라 명하네
消渴促一進	소갈증이 나서 한 잔 올리라고 재촉하고
10染指不待同	같이 먹기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찍어 맛보네
居然美味俱	어느새 맛있는 음식이 모두 갖추어졌으니
豈但飢腸充	어찌 다만 굶주린 배만 채우겠는가

二崔從醉飽	두 최씨는 취하고 배불러 있으니
長夜莫忽忽	긴 밤 서둘러 떠나지 마시게
15非無淸源酒	청원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秣藟不成醴	기장과 수수로는 진한 술을 만들기 어렵다네
亦有魯江魚	또한 노강의 물고기 있다지만
餘項實稀逢	여항어 참으로 만나기 어렵다네
感嘆同里子	감탄하는 동네 사람들
20惓惓懷舊棕	저마다 옛 정을 다정히 떠올리네
疵賤尙見憐	미천한 몸이지만 오히려 가없게 여겨 주고
使次不厭重	심부름꾼 거듭 보내도 싫어하지 않네
停杯一長歌	잔 멈추고 한번 긴 노래 부르고
欲與回書封	답장을 봉해 보내려 하네 ³³

다음으로 살펴볼 작품은 「청원록」에 수록되어 있으며 유형 ‘나’에 속하는 장편시이다. 이 작품은 물품을 보낸 대상 측면에서 앞서 살펴본 한시 작품들과 차이를 보인다. 가까운 지인이 아니라 지방 수령인 위원 태수가 소주 한 말과 생선 여덟 마리를 보내온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한 작품이기 때문이다. 시제에 따르면 죽당은 이 물품을 두 최씨와 함께 나누어 마시고 먹었음을 밝히고 있는데, 이 점에서 유형 ‘가’와는 달리 물품에 해당하는 음식을 기점으로 유배지에서 이루어진 교유 양상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비록 시제에 ‘사(謝)’ 자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유형 ‘나’에 속하나 한시 작품 전반에 감사의 정서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으므로 사례시의 범주 안에서 함께 다룰 수 있겠다.

작품을 살펴보면, 먼저 앞 부분에는 위원 태수가 보낸 술을 테우는 장

33 申濡, 『竹堂集』, 「淸源錄」, 〈渭原太守送燒酒一斗 錦鱗魚八尾 烹魚酌酒 與二崔同飲喫 走筆成詩 因以寄謝〉.

면이 제시되며, 이어서 받은 생선 비늘과 무늬의 영롱함이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다. 이는 변방으로 대별되는 유배지의 궁핍한 환경 속에서 물품을 받은 감사함을 표현한 것이다. 이어서 죽당은 이 물품이 위원 태수가 보낸 것인 줄 알면서 한번 더 재차 확인하는 절차에서 서신을 통해 확인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종을 불러 음식을 모두 갖추게 하고 두 최씨로 대별되는 이들과 함께 유배지에서 물품을 중심으로 교유의 장을 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죽당은 위원 태수가 보내준 술과 생선의 귀중함을 강조하면서 유배지에 있는 미천한 자신에게 이러한 물품을 보내준 감사의 뜻을 표출하고 있다. 또한 죽당이 서신을 통해 답장을 씌으로써 감사의 뜻을 위원 태수에게 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작품은 ‘사(謝)~’ 형식의 직접적인 사례시와 달리 음식의 조리와 향유, 교유의 장면이 서사적으로 전개된다는 점에서 유형 ‘나’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고 여긴다. 나아가 앞선 시에서 확인한 것과 마찬가지로 죽당은 이러한 물품을 받음으로써 유배지에서 고립된 처지에서 벗어나 물품을 기점으로 교유하고 또 자신의 존재를 회복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俾來叩戶罷昏眠	심부름꾼 와서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밤잠에서 깨어
餽遺隨書荷見憐	편지와 함께 온 물품 받으니 나를 가엾게 여긴 정을 받네
米帶鹹鯉腰再折	쌀에다 소금까지 보내느라 허리가 거듭 굽었겠구나
鮑兼塩薺尾雙聯	민어는 소금에 절여 말려 꼬리를 한 쌍씩 묶어놓았고
細魚半斗蘇編六	학꽂치 반 말을 여섯 개씩 묶었다네
蝦卵盈升筭累千	새우 알이 되에 가득하여 세어보니 수 천이네
十箇麴生風藉藉	누룩으로 빚은 술 열 병은 풍미가 자자하고
一瓶燒酒露涓涓	한 병 소주는 맑은 방울 잔잔히 흐르네
香粳作飯精無比	향긋한 멥쌀로 지은 밥은 훌륭함이 비할 데 없고
白雪調羹味更全	흰 눈 같은 밥에 국을 맞추니 맛이 더욱 완전하네
自識生乾佳美並	날 것과 말린 것의 아름다운 조화를 스스로 깨닫게 되니

誰論氣品破傷痊 누가 상처 입은 기품 회복되었는지 따지겠는가
 身長不爲烹熬敗 큰 생선은 부서지지 않게 삶고
 鱗細仍無刺骨堅 작은 생선은 뼈를 발라낼 것이 없네
 產出梅蘆名自好 매로 새우는 그 이름도 좋고
 色勝蕉荔狀何鮮 빛깔은 파초와 여지보다 뛰어나고 모양이 어찌 그리 신선한가
 寅神旺日因催釀 인의 기운이 해를 왕성하게 하여 술 빚기를 재촉하고
 卯聖歡時合暢惓 묘시에 술의 흥 무르익으니 함께 근심을 털어버리네
 晨夕潔馨眞幸爾 아침저녁으로 정갈하고 향기로운 음식 있어 진실로 다행이고
 此腸蔬糲已怡然 이 뱃속은 채소와 거친 밥에도 이미 즐거웠다네³⁴

다음으로 살펴볼 작품은 「도술록」에 수록된 〈사아산이사군정약기혜구중〉(謝牙山李使君挺岳寄惠九種)으로, 죽당이 1657년 10월 천안으로 이배된 이후 창작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작품과 결을 달리한다. 유형 ‘가’로 분류되므로 이 작품 역시 시제에서부터 ‘구중(九種)’이라 명시하듯 다량의 물품 증여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아울러 첫 유배에 처했을 때 지은 시가 수록된 「청원록」 작품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정서의 고통이 조금 더 완화된 면모를 보인다. 첫 번째 유배지가 변방이었다면 이 시가 작시된 공간은 천안이라는 차이를 보이기에 심리적으로 이배된 이후에는 이전 시기보다는 유배에 대한 고통이 경감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작품을 분석해보면, 이 시 역시 서사적인 구성을 보이고 있는데 심부름꾼이 밤 중에 편지와 물품을 가지고 당도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지는 부분에는 쌀과 소금, 절인 민어, 학꽂치, 새우 알, 술 등 다양한 식재료가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동시에 음식의 조리 과정과 풍미가 섬세하게 시 안에 그려져 있다. 아울러 마지막 부분에 이르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죽당이 음식이 있음을 다행으로 여기며 초연한 심경으로 현재 상황을 즐기고 있음

34 申濡, 『竹堂集』, 「兜率錄」, 〈謝牙山李使君挺岳寄惠九種〉.

을 볼 수 있다. 이는 유배 초기에 나타났던 자조와 혼란의 정서와는 일정부분 구별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앞서 살펴본 「청원록」에 수록된 사례시들이 물품을 통해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또 방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회복하는 과정이었다면, 천안으로 이배된 이후 창작된 「도솔록」 수록 작품들은 삶이 재건되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4. 맺음말

이 글은 죽당(竹堂) 신유(申濡, 1610~1665)의 유배와 이배라는 경험을 기점으로 그의 유배시에 드러난 두 국면을 규명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지금까지 죽당은 소북계열 문인으로서 정치적 부침과 관련하여 언급되어 왔으나, 두 차례의 유배를 중심으로 그의 시세계를 구조적으로 분석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이 글에서는 『죽당집』 가운데 「청원록」과 「도솔록」에 수록된 유배시를 집중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유배라는 사건이 그의 자기 인식과 시적 형상화 방식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에 먼저 2장에서는 죽당의 삶과 문집의 구성, 그리고 1657년의 유배와 그해 10월 천안으로 이배에 이르는 경위를 『효종실록』 사료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에 먼저 죽당의 삶을 전체적으로 개관한 이후 죽당의 유배가 당대 효종의 정치적 판단과 인식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이었음을 살피는 동시에 유배와 이배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다. 나아가 『죽당집』 문집을 전체 개관한 이후 문집 편제의 특징을 분석하는 동시에 유배시가 수록된 부분인 「청원록」과 「도솔록」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죽당의 유배시를 ‘붕괴’와 ‘재건’이라는 두 국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에 첫 번째로는 「청원록」에 수록된 초기 유배시를 중심으로, 유배 직후 점진적 현실 인식과 자조적 정서의 혼용에 드러난 붕괴 양상을 고찰하였다. 그에 따라 〈속몽시〉에서는 죽당이 꿈

속에서 공간과 신분의 혼돈을 마주한 이후 자신의 처지를 점진적으로 자각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유배 초기 죽당이 현실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방식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육언〉과 〈차운정보방백건기〉 등에서는 세상의 명리와 은거 지향 사이에서 충돌하는 자아 인식 양상을 확인하였다. 이는 기존의 삶의 질서가 흔들린 상황에서 자신의 위치를 새롭게 가늠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종합해보면 첫 시기 유배시에서는 죽당이 유배라는 현실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채 이를 꿈과 현실의 모호한 경계 안에 배치하여 점진적으로 현재 상황을 수용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이는 기존의 삶의 질서가 해체된 국면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규정하지 못한 채 혼란을 겪는 인식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나아가 이후 죽당은 현재 처지를 자조적으로 인식하며 현실을 직시함으로써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직시하기 시작하는 면모를 보인다고 하겠다. 이러한 모습은 첫 시기 유배와 두 번째 시기 이배의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포착되는데, 죽당은 유배라는 사건 안에서 ‘붕괴’의 국면에 놓이게 되며, 그로 인해 그의 유배시는 점진적 현실 인식과 자조적 정서의 혼융의 일 양상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두 번째로는 유배가 지속되는 가운데 나타나는 물품 사례시를 중심으로 ‘재건’의 국면을 살펴보았다. 이에 「청원록」과 「도솔록」에 수록된 197제 가운데 21제가 물품 증여와 관련된 사례시이며, 수량적인 측면에서 전체의 약 11%에 해당함을 밝혔다. 이에 이 글에서는 이를 사례시로 명명하고 시제와 전개 양상에 따라 유형을 ‘가’와 ‘나’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아울러 「청원록」에 수록된 사례시들이 물품을 통해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또 방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회복하는 과정이었다면, 천안으로 이배된 이후 창작된 「도솔록」 수록 작품들의 경우 삶이 재건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음을 밝혔다.

종합해보면 이 글은 한 인간에게 유배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그리고 유배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산출된 유배시는 어떠한 성격의 문학으로 이해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질문은 기존 한시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개별 문인을 대상으로 한 논의 또한 적지 않게 축적되어왔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유배시 연구가 일정한 해석의 틀 속에서 반복되면서 특정 문인의 삶과 문집 전체를 유기적으로 조망하기 보다는 기존의 설명 방식을 재확인하는 데 머무르는 데 그친 점도 포착된다고 여겼다. 이에 이 글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죽당의 유배시를 그의 생애와 문집의 구성 속에서 구조적으로 재검토하고자 한 것이다. 그에 따라 이 글에서는 죽당의 유배시를 ‘붕괴’에서 ‘재건’이라는 두 국면으로 나누어 살피는 동시에, ‘붕괴’와 ‘재건’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연장선에서 이어지는 양상으로 파악하였다. 유배 초기에는 현실을 직접적으로 응시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점진적인 인식과 자조적 정서가 교차하는 양상이 나타나며 이후 물품의 증여와 답례를 기점으로 관계망이 재조직되면서 그 안에서 자기 존재를 다시 규정하려는 면모가 확인됨을 일면 밝혔다. 이에 이 글은 죽당의 유배시가 더욱 입체적으로 연구되는 데 있어 일정 부분 작은 기여를 했다고 여기는 바이다. 다만 향후에는 죽당에 대한 연구가 더욱 진척되어 유배 이전 시기 작품과의 대비 검토가 필요하리라 여긴다. 아울러 유배시라는 특정한 한시 작품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동시대 문인들의 유배시와의 비교가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여기는 바이다. 이 글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지점들은 필자의 꾸준한 연구를 통해 채워나가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문헌자료

- 『孝宗實錄』
 奇 遵, 『德陽遺稿』
 申 濡, 『竹堂集』.

논저

- 김묘정(2021), 『조선후기 소북문단의 형성과 소북팔문장』, 학자원.
- 강혜선(2017), 「조선후기 유배 한시의 서정성: 시 양식에 따른 서정의 표출 방식을 중심으로」, 『한국한시연구』 25, 한국한시학회.
- 고영진(2024), 「북헌(北軒) 김춘택(金春澤)의 제주 유배지 삶에 대한 고찰」, 『문화와예술연구』 25,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예술콘텐츠연구소.
- 김묘정(2018), 「竹堂 申濡의 일본체험과 지식의 새 지평: 지식기반과 지식영역의 확대 양상을 중심으로」, 『고전과해석』 25,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 김은지(2011), 「李荇의 유배시에 나타난 정서 양상」, 『국어문학』 50, 국어문학회.
- 김진호(2012), 「柳方善의 流配詩에 내재된 정서의 제 양상」, 『대동한문학』 37, 대동한문학회.
- 박명희(2018), 「文谷 金壽恒의 靈巖 유배 시에 나타난 공간 인식과 지숙」, 『동방한문학』 77, 동방한문학회.
- 박명희(2020), 「茂亨 鄭萬朝의 진도 유배 시에 나타난 현지인과의 교유와 그 의의」, 『동방한문학』 82, 동방한문학회.
- 안장리(2018), 「척약재 김구용 유배지에서 교유의 의미」, 『포은학연구』 21, 포은학회.
- 윤재환(2008), 「朝鮮 後期 流配 經驗의 詩의 形象化: 梅山 李夏鎭의 「雲陽錄」을 중심으로」, 『漢文學報』 19, 우리한문학회.
- 정경훈(2023), 「竹堂 申濡의 漢詩 一考: 『錦江錄』을 중심으로」, 『한문고전연구』 47, 한국한문고전학회.
- 정영문(2009), 「신유의 『해사록』에 나타난 일본체험과 인식고찰」, 『은지논총』 21, 은지학회.
- 최 식(2023), 「竹堂 申濡의 使行文學 研究: 癸未通信使와 壬辰謝恩使를 중심으로」, 『한문고전연구』 47, 한국한문고전학회.
- 하정승(2017), 「麟齋 李種學의 유배시에 나타난 意境과 미적 특질」, 『동방한문학』 73, 동방한문학회.
- 허경진·조혜(2017), 「신유의 일본과 중국 두 나라 인식에 대한 비교 연구: 『해사록』 및 『연대록』을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55, 열상고전학회.

원고 접수일: 2026년 4월 12일, 심사완료일: 2026년 5월 4일, 게재 확정일: 2026년 5월 11일

ABSTRACT

Two Phases of Exile Poetry in Jukdang Sin Yu (申濡)

Kim, Myo-jung*

Focusing on the Collapse and
Reconstruction of an Individual

This study examines the two distinct phases manifested in the exile poetry of Jukdang Sin Yu (申濡), focusing on his experiences of banishment (*yubae*) and subsequent relocation (*ibae*). Centering on the sections *Cheongwonrok* (淸源錄) and *Dosolrok* (兜率錄) in the *Jukdangjip* (竹堂集), this article analyzes selected exile poems in relation to his life and literary world. The second section first outlines Sin Yu's life and, drawing upon records from the *Hyojong Sillok* (孝宗實錄), reconstructs the circumstances of his banishment in 1657 and his later transfer to Cheonan. It also examines the compilation structure of the *Jukdangjip* and the arrangement of exile poems within it. The following section then explores Sin Yu's exile poetry through the dual framework of collapse and reconstruction. In the phase of collapse, early exile poems reveal a gradual recognition of reality intertwined with self-mocking sentiment, reflecting the destabilization of his former life order. Notably, tensions between dream and reality, as well as between worldly ambition and reclusion, highlight a conflicted self-awareness. In contrast, the phase of reconstruction is illuminated through poems of gratitude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Sino-Korean Education, Dankook University

composed in response to gifts received. By analyzing these poems, the study demonstrates how the act of receiving goods functioned as a medium through which Sin Yu reaffirmed his existence within a network of relationships. While the poems in *Cheongwonrok* reflect a process of rediscovering the self amid disorientation, those in *Dosolrok* more clearly portray the rebuilding of life after relocation. By examining the phases of collapse and reconstruction as a continuous process, this study offers a multidimensional understanding of how Sin Yu established his own intellectual and emotional framework within the exceptional condition of exile.

Keywords Jukdang Sin Yu, Exile, Collapse, Reconstruction, Gratitude Poems